

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학교적응과 취업모의 일-자녀교육 갈등: 양육역량의 조절효과

박인숙(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), 이재림(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)

연구목적 및 배경

-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부모는 학부모로서 더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때 학부모 역할은 우리나라 특유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을 의미함
- 즉, 취업모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이후 기존의 일-가족 갈등에 자녀교육 부담이 가중되면서 일-자녀교육 갈등을 경험
- 한편 자녀가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, 가족체계의 상호의존성(Price et al., 2010)으로 인해 취업모의 일-자녀교육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음
- 하지만 양육역량과 같은 취업모의 심리적 자원에 따라, 자녀의 학교부적응 등 스트레스 상황이 취업모의 일-자녀교육 갈등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음
- 따라서 본 연구는 1)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학교적응이 취업모의 일-자녀교육 갈등과 관련이 있는지, 2) 두 변인 사이의 관계를 취업모의 양육역량이 조절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

연구방법

- 연구참여자
 - 학부모교육참여패널 2차년도(2018년, 초2) 자료 중 조사시점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던 어머니 175명($M_{연령} = 39.11$; 주당 근로시간 5-60시간)의 응답
- 주요 변인 측정도구
 - 독립변인: 자녀의 학교적응
 -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의 학교생활 파악과 생활생활 적응에 관한 6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(이강이 외, 2013)
 - 6문항의 산술평균을 분석에 사용(Cronbach's α .86)
 - 종속변인: 일-자녀교육 갈등
 - Cinamon과 Rich(2002)가 개발하고 유성경 외(2012)가 타당화한 일-가족 갈등 척도를 패널 연구진이 '가족'을 '자녀교육'으로 수정한 척도 사용
 - 총 14문항의 산술평균을 분석에 사용(Cronbach's α .95)
 - 조절변인: 양육역량
 - 정계숙과 최은실(2013)이 개발한 부모역량감 척도를 정계숙 외(2016)가 단축화한 척도 중 양육역량 하위척도를 사용
 - 총 27개 문항의 산술평균을 분석에 포함 (Cronbach's α .91)
- 분석방법
 - SPSS를 활용한 기술통계분석, 상관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 실시
 -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2단계에 투입
 - 통제변인에는 연령, 교육수준, 가구소득, 근로시간, 근로형태를 포함
 - PROCESS를 사용하여 단순기울기 검증 및 Johnson-Neyman 분석을 실시

연구결과

○ 취업모의 일-자녀갈등 회귀분석 결과: 양육역량의 조절효과 검증($N = 175$)

변수	모델 1			모델 2		
	B (SE)	β	t	B (SE)	β	t
(상수)	2.56 (0.13)		19.31	2.58 (0.13)		19.57
연령	0.02 (0.01)	0.08	1.03	0.02 (0.01)	0.07	1.03
교육수준	0.02 (0.07)	0.02	0.23	0.01 (0.07)	0.01	0.13
월평균 총소득	-0.06 (0.04)	-0.12	-1.64	-0.05 (0.04)	-0.10	-1.37
근무시간	0.02 (0.01)	0.26 **	3.11	0.02 (0.01)	0.26 **	3.18
근무형태	0.31 (0.15)	0.16 *	2.04	0.31 (0.15)	0.16 *	2.05
자녀의 학교적응 (A)	-0.29 (0.13)	-0.16 *	-2.22	-0.34 (0.13)	-0.19 *	-2.57
양육역량 (B)	-0.31 (0.16)	0.15 †	-1.93	-0.35 (0.16)	-0.17 *	-2.21
A × B				-0.64 (0.33)	-0.14 *	-1.98
F	6.86 ***			6.60 ***		
R ²	.22			.21		
ΔR^2	-			.02*		

** $p < .01$. * $p < .05$. † $p < .10$.

-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으면, 취업모의 일-자녀교육 갈등이 **유의하게 낮음** ($\beta = -0.16, p < .05$)
- 취업모의 양육역량은 자녀 학교적응과 취업모의 일-자녀교육 갈등 관계를 **유의하게 조절** ($\beta = -0.14, p < .05$)

○ 양육역량 수준별 자녀의 학교적응이 취업모의 일-자녀갈등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

어머니의 양육역량	B	SE	t	95% CI	
				LL	UL
M - 1SD	-0.11	0.16	-0.73	-0.42	0.19
M	-0.34	0.13	-2.59 *	-0.60	-0.08
M + 1SD	-0.56	0.19	-2.97 **	-0.94	-0.19

** $p < .01$. * $p < .05$.

- 단순기울기 검증 결과, 양육역량이 평균 또는 평균 이상인 집단에서는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으면 취업모의 일-자녀교육 갈등 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반면, 양육역량이 평균보다 낮은 집단에서는 학교적응과 일-자녀교육 갈등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음
- Johnson-Neyman 분석 결과, 양육역량이 4.01점 이상이었던 취업모의 66.86%는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인식할 때, 일-자녀교육 갈등을 낮은 수준으로 경험하는 반면, 양육역량이 4.01점보다 낮은 연구참여자 경우 두 변인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음

논의 및 결론

-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-자녀교육 갈등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자녀의 학교적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
- 취업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, 직장, 지역사회에서의 지원 및 개입에 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

키워드 취업모, 일-가족 갈등, 초등학교 적응, 양육역량